

매주 토요일 대인예술야시장 인기몰이

지난달 방문객 7000명... 지난해보다 2배 늘어 문화전당·예술의 거리 등 연계 문화공간 '특색' 윤 시장 문화브랜드 육성 의지 반영 사계절 행사로

대인예술야시장이 매주 토요일 개장함으로써 시민·관광객들이 참여해 문화를 누리는 광주의 대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서 열리는 대인예술야시장을 지난 2월 6일부터 매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이들 동안 운영해온 대인예술야시장을 매주 토요일(오후 7시~오후 11시)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는 운장현 광주시장의 문화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주말이면 가보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청 안팎에서는 기운이 떨어지는 겨울철임을 감안해 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시장은 계절 특성을 살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런 의지는 '대인예술야시장을 사계절 행사가 열리는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관광객들이 화답하면서 대인예술야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들어 시민,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2월 평균 3000여 명이었던 방문객이 지난 2월 6일 4000여명, 2월 26일 8000여 명으로 매주 증가해 2월 평균 7000여 명이 달했다.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3월에는 '봄의 문장'을 주제로 예술야시장이 열리고 있다. 왕성하게 창작하는 작가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와 음악, 회화가 어우러진 마당이 이어지고 있다. 회화와 음악중심의 야시장에 문학적 색채를 가미해 대인예술야시장이 기존의 틀에 안주하고 않고 생동감 넘치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지난 5일에는 이원규 시인이 '봄바람 난 시인 이원규'를 주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고 안오일·이인범 시인이 자작시를 낭송해 호응을 얻었다. 강제운 시인은 12일 '봄 시인이 봄에서 주운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조성국·고영서 시인도 시를 낭송했다. 오는 19일에는 고재중 시인이 '봄을 부르는 시들'을 주제로 발제하고, 심진숙·전숙경 시인이 낭송한다. 26일에는 김미승 시인이 '이 빛깔들은 어디에서 왔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박석준·조혁준 시인의 낭송이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5·18민주광장에서, 넷째 주 토요일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프리마켓이 열리고,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나비아 공동가자'가 진행된다"며 "대인시장과 문화전당, 예술의거리, 양립동 역사문화 마을을 연계한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문화복합공간,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ACC 봄마당 축제 : 봄(Spring), 봄(Seeing), 봄(Boom)'을 개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돕고

시, 15~34세 미취업자·참여 기업 모집

광주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관련해 미취업자 청년인턴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인턴 참여 신청 대상은 인턴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구분 없음)미취업자이며, 참여 기업 신청 자격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인턴 월 급여 139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8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인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100만원의 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 희망자와 참여 희망 기업은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인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 자격을 심사해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인턴근무 신청자 중 고졸자를 30%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062-960-2641)에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년고용 우수 기업 발굴하고

시, 내달 8일까지 모집...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광주시는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고용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 청년고용 우수 기업'을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1년간 상용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이 3명(소기업 2명) 이상인 기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는 심사를 거쳐 20여 개 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로 기업 당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청년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이 사업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는 심사를 거쳐 20여 개 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로 기업 당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청년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나무 무료로 나눠 드려요

21일 오후4시 시청앞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내 나무 갖기 행사'의 하나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선착순 1500명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준다.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통해 봄철 나무심기 붐을 조성하고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생명의 숲과 함께 진행된다.

나눠주는 나무는 감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등 나무 3종과 돌담풍, 로즈마리 등 초화류 2종을 포함, 총 5종 7500여 그루이며, 행사 당일 1인당 5그루씩 배부한다.

한편 시는 봄철 시민 나무심기와 내 나무 갖기 붐 조성을 위해 해마다 나무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1500여 명에게 7500여 그루를 나눠 줬 호응을 얻었다.

봄철 나무심기와 관련해 광주산림조합,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월 8일까지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조경수 유통센터, 북구 운정화훼단지 등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상시 판매장도 개설돼 나무와 관련 자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나무심기 요령과 사후관리 방법 등도 상담해 주고 있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나무심기와 내 나무 갖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가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집수리 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17일 광산구 첨단, 신항, 비아동 일원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4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출입문 등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도시공사 제공>

온실가스 감축 참여 아파트 30일까지 공모 인센티브 2배 증액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등급별 인증 방식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의 7차년도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에 참여할 아파트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골드등급(기존 실버등급 수상아파트), 실버등급(기존 일반등급 수상아파트)과 일반등급(신규 및 미수상)으로 구분, 등급별 경쟁 체제로 실시된다. 연말에는 참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급별 인증표지판도 부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가스·상수도·음식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저탄소 부문에 대한 배점을 4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고, 평가가 어려운 지표, 아파트 규모와 조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삭제하는 등 형평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인센티브도 2배 가량 증액해 자발적 참여 동기를 높였다. 한편,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43.7%

를 가정과 상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주거공동체를 기반으로 자발적 실천 유도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그동안 총 179개 아파트가 참여해 50억이 우수아파트로 선정돼 주변 아파트들에 새로운 녹색생활 실천 모델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CO2) 감축량은 총 5398t으로 이는 소나무 19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시민활동가 모집

내달 1일까지... 7월부터 학교·아동센터·도서관 등서 강의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4월 1일(금)까지 '2016년도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2기' 40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으로는 시민활동가, 시민교육강의 경험이 있는자,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마을감사,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고 리더십을 겸비한자, 주민자치위원장, 구 역점 시책추진 주민지도자,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명망가 등이 해당된다.

선발된 시민활동가는 4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16회 양성교육을 받고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행복학습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학습동아리 모임 등 5인 이상 시민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광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활동가들의 헌신과 나눔이 깃든 이 활동이 마을 곳곳의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불어 평생학습을 통한 광주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ie.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운영팀 담당자 전화(062-600-5222)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조정가)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5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